

제60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8월 8일)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시아

박연희 | 306호 인도실, 307호 중앙아시아실 | 18:00~18:30

아시아의 두 가지 전시품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려보는 과정을 통해 지역 간, 나라 간 ‘교류’의 흔적을 살펴보고 감상하겠습니다.



그림1. 간다라 보살

인도 간다라 보살의 얼굴, 옷차림, 자세 세 가지에 주목하여 그리스, 로마의 흔적을 찾아봅시다.

- ▶ 얼굴: 코와 이마가 높고 두 눈이 움푹 파여 있는 사실적인 생김새
- ▶ 옷차림: 옷에 가려져 있는 신체의 굴곡과 몸을 따라 흐르는 옷의 곡선
- ▶ 자세: 한쪽 다리에 무게를 집중해서 다른 쪽 발이 편안하게 놓이는 자세

※ 보살: 깨달음을 향해 가는 존재, 깨달음을 얻기 전의 석가모니

중앙아시아 복희와 여와 속 얼굴, 손, 자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중국의 흔적을 찾아봅시다.

- ▶ 얼굴: 하얀 얼굴, 꽃무늬 장식 이마, 빨간 볼, 작은 앵두 입술 등 호풍 화장
- ▶ 손: 들고 있는 컴퍼스와 자는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우주관을 반영
- ▶ 자세: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다리는 엮어져 있어 세상의 조화와 만물의 생성, 죽은 자의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의미

※ 호풍: 중국 북방과 서방 이민족의 풍습으로 당나라에서 이민족의 문화를 편견 없이 포용하고 즐김.



그림2. 복희와 여와

제60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8월 8일)

특별전<황금문명 엘도라도>(1)

오세은 | 기획전시실 | 18:00~18:30

16세기 잉카와 마야를 정복한 스페인 사람들 사이에 현재 콜롬비아 보고타 부근 고원에 살았던 ‘무이스카(Muisca)’ 원주민의 ‘엘도라도 전설’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 부족은 새로 즉위하는 족장이 온 몸에 끈적한 진흙을 칠하고 금가루를 바른 채 호수 가운데로 뗏목을 타고 나아가 의식이 끝나면 신성한 호수 물에 몸을 씻어내고, 부족민들은 그 호수로 가서 금과 온갖 보석들을 던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이스카의 족장을 가리켜 황금빛이 나는 사람 ‘엘도라도’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아예 금이 널려있는 땅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결국 엘도라도는 콜롬비아 원주민 무이스카족의 새 족장이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이 호수에서 즉위식을 치른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무이스카족은 오늘날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가까운 쿤디나마르카주와 보야카주의 고지대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족장은 움막 속에서 외부인 접촉, 소금 섭취, 낮 동안의 외출을 금지당한 채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야 즉위할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족장은 즉위식을 하기 위해 샤먼의 도움을 받아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사제들과 함께 뗏목을 타고 호수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뗏목에는 금과 에메랄드로 만든 다양한 보물을 싣었고, 호수 한 가운데에서 호수 물로 족장은 자신의 몸의 금가루를 씻어내고 보물들을 호수에 던져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럽 사람들은 그 호수만 찾으면 금은보화를 가득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는 도시 전체가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로 와전되어, 엘도라도는 황금



금가루를 족장의 몸에 바르는 모습, 16세기 판화, 테모드로 데 브라이

의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스페인의 일반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대박 원정대’를 꾸려 대서양을 건넌다. 그리고 엘도라도를 찾으려는 무서운 일념으로 아메리카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스페인 침략자들은 아무도 그 호수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습니다. 대충 아마존강과 오리코노강이 만나는 상류지역이라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어 무모한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제60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8월 8일)

가야지역 출토 철제 갑옷

김종오 | 107호 가야실 | 19:00~19:30

갑주甲冑: 적의 공격무기로부터 몸을 방어하기 위해 제작·착용하였던 무구이며 군사를 지휘하는 위세와 용맹함을 드러내는 전사의 상징물.

갑甲~ 몸통 방어

주冑~ 머리를 보호

갑주의 종류 :

재료~ 가죽[革], 뼈[骨, 그림1.], 나무[木], 직물織物, 금속金屬 등

제작방법~ 혁철판갑革綴板甲, 정결판갑釘結板甲

제작형태~ 판갑板甲;

종장판갑縱長板甲, 횡장판갑橫長板甲, 삼각판갑三角板甲

비늘갑札甲[그림2.]

착장부위~ 머리; 투구[冑]

투구의 종류; 종장판주縱長板冑, 충각부주衝角附冑,

차양주遮陽冑, 소찰주小札冑, 이형주異形冑

몸통; 갑옷[甲]

경갑頸甲, 견갑肩甲, 상박갑上膊甲, 팔갑肱甲, 경갑脛甲,

상갑裳甲, 요갑腰甲 등

착장대상~ 말馬, 말의 얼굴 가리개[馬冑], 말의 몸통[馬甲]

한반도 갑주의 특징

- 갑주甲冑는 고대 기술의 정수이다.
- 한반도에서 자체 제작된 갑주는 3 ~ 4세기경부터 나타남.
- 갑주의 발전은 종장판> 삼각판> 횡장판
- 갑옷은 후기로 갈수록 장식성이 강해진다.
(새모양 장식, 고사리문양 장식, 가죽, 동물의 털, 새의 깃털 부착)
- 현재 한반도에서 고대갑주가 발굴된 사례는 약 450여점으로 정리되고 있다.
; 이중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레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음.
- 갑주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자료를 정리하고 정확한 형태로 복원하는 보존처리와 연구과정을 거치고 있음.



그림1. 서울 몽촌토성 85-4호 저장공 출토 골제비늘갑옷[骨製札甲]



쌍영총 개마무사

그림2. 쌍영총 벽화에 그려진 개마무사鎧馬武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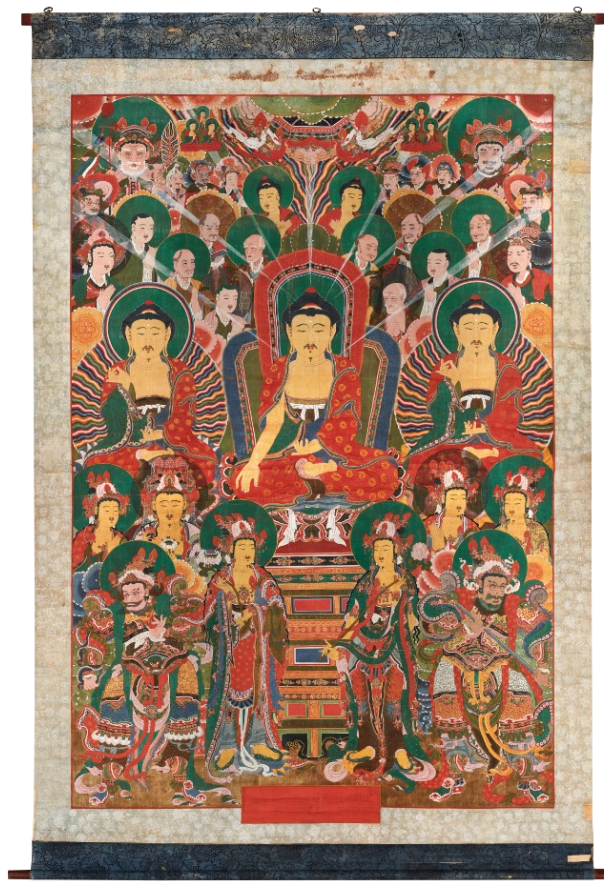
괘불전

<세 부처의 모임 - 상주 용흥사 괘불>

유수란 | 203호 불교회화실 | 19:00~19:30

괘불은 많은 사람이 모인 법회나 의식이 열릴 때 사찰의 야외나 마당에 거는 대형 불화를 말합니다. 사찰 경내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대중으로 붐비고, 법당 밖에서 불교 의식이 진행됩니다. 의식이 시작되면 예배 대상인 부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모습을 드러낸 부처는 크기가 매우 커서 자리를 잡은 수많은 이가 가까이, 혹은 멀리서도 그 모습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상주 연악산 기슭에 자리한 용흥사에는 아주 큰 괘불 한 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684년 5월 13일 꽃내음으로 가득한 봄날, 상주 연악산 용흥사에서는 9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대형 괘불을 조성하였습니다. 괘불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은 살아서는 질병의 고통 없이 장수하고,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하였을 것입니다. 길이 10여 미터가 넘는 대형 화면에는 석가모니불, 약사불, 아미타불의 모임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웅장하고 성스러운 세 부처의 모임에는 이 뜻깊은 자리를 찬탄하기 위해 38명의 인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용흥사 괘불>은 화사한 색채와 다채로운 문양이 선명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0미터가 넘는 화면에 가득 피어난 아름다운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세 부처가 모인 장면을 화려하고 성스럽게 그려내고자 했던 불심 가득한 예술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주 용흥사 괘불, 보물 제1374호